

첫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일
10/24



대왕오일뱅크

경기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691
031-662-5185

개업일
10/27



성한평동오일뱅크

충북 단양군 매폍읍 단양로 2010
043-421-0100

개업일
10/28



당진수청오일뱅크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390
041-357-5180

개업일
10/24



진천현대오일뱅크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03
043-533-5182

개업일
10/29



월드컵오일뱅크

전북 군산시 변영로 68
063-445-1336

개업일
10/26



득안오일뱅크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 1193
041-742-7599

개업일
10/29



서문오일뱅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21
054-291-1885

이달의 우수직원

20년 동안 한결같은 책임감으로
서울지사 장삼오일뱅크 김기재 부장



김기재 부장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고객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긴 시간 주유소에서 근무한 만큼 곳곳에 김 부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처럼 처리하고, 예상 못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김 부장은 10년 전쯤 서비스데이를 맞이해 재활용센터에 보관 중인 책을 수거해 주유소 앞에 작은 서점을 만들었다. 작은 동네에 위치해 주유소 이용 고객 또한 단골 고객이나 동네 주민이 많았는데,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것이 없는지 고민하다 얻은 아이디어였다. 오기며 주유소에서 책을 빌리기도 하고 남편이 주유하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주유소 앞 서점이 입소문만 나면서 이전 고객이 읽지 않은 책을 주유소로 가져와 다른 고객이 읽을 수 있게 한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장삼오일뱅크 중심에 김 부장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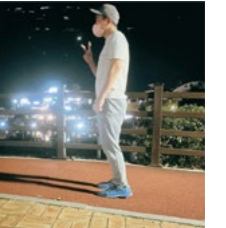
한 장소에서 20년을 보냈으니 부모님을 따라 주유소에 오던 아이가 직장인이 되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었던 고객이 어느덧 60대가 되어 지금도 정정하게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김 부장을 보며 미소 짓는다. 김 부장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근무 후 1시간씩 자전거나 타거나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고객에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주유원의 건강관리는 필수임을 강조했다. 김기재 부장이 있는 장삼오일뱅크는 오늘도 이상 무! 김 부장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번 달 우수주유원으로 선정한다.

ESG 걸음기부 캠페인 'Green Walk, Together!'를 통해 많은 걸음을 기부해주신 분들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1위. whysochic

(충남지사 신장호 선임매니저)

오일뱅크 걷기왕 충남지사 신장호입니다! 먼저 E와 S가 결합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캠페인을 기획해 주신 ESG전략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주신 2위께도 후기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행사 시작일인 10월 4일이 지사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 나가서 매일 걷고, 5시 땀 하면 칼로에서 호수공원을 좀비처럼 배회해도 이해해주신 충남지사 분들의 배려와, 가능한 거리는 무조건 걸어서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해준 아내 덕에 1억 걸음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며 하염없이 걸으면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영언이 있어 소개하며 후기 마칩니다. '이 봐, 해보거나 했어?' 감사드립니다.



2위. 덤잉고, 9위. 까미정

(지원팀 성원경 책임매니저 부부)

걷고 또 걸었던 지난 한 달은 우리 부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라, 경상, 충청, 강원외 6개 국립공원에 산행을 다녔고 강원도 해파랑길과 서울 한양도성 트레킹을 하며 우리나라에 500여 개가 넘는 걷기 여행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BAC 100대 명산의 마지막 100번째 산행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40km를 걷는 강행군이었지만, 네 다리로 전국을 다니는 여행길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걸음을 걸으며 기부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었던 ESG 캠페인은 우리 부부가 함께 걸으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위. Walk Walk!

(HOU2팀 김현경 대리 가족)

남편과 함께 건강을 위해 걷자고 다짐했는데, 마침 걷기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참여했습니다. 집 근처 잠홍저수지, 온석저수지, 공원, 부촌산을 오전 오후로 걷기도 하고, 아파트 계단 이용하기, 저널 약속장소까지 걸어가기 등등 걸어갈 수 있는 곳은 한 달 내내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고등학생 딸 아이가 아산 선문대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여 함께 가서 대학 캠퍼스 곳곳을 거니는데, 그렇게 예뻐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의 색깔로 물든 단풍과 노랗게 된 은행나무, 바람에 떨어지는 잎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캠페인 덕분에 가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걷기메이트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걸음 기부, 열심히 걸었더니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